

가상자산 Bi-Weekly Market Recap

6월 1주차: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재편 신호

INEX 전략기획팀 Analyst 전대은 danny@inexkr.com

시황 Summary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신규 수주, 구매자 지수 그리고 고용지수 등 모두 기준선(50) 이하로 경기 둔화 신호가 명확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인하로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는 위험자산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현물 ETF 자금 유입 지속과 맞물려 반등세 재개를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4월 말 이후 다시 유입 우위 전환되었으며, 알트코인 또한 ETH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일부 확산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면,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기 랠리에 핵심적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Key Issue

친 가상자산 정부,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실물자산의 증권화, 토큰증권의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ICO 허용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한 거래 중심을 넘어 금융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투자자 저변 확대와 함께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그간 '투기'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과 나란히 서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주도의 제도화와 정책적 뒷받침은 국내외 기관 자금의 유입을 견인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들이 실물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의 추진은 가상자산을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및 유통 인프라로 활용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 주간 가상자산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인엑스, AML 체계 고도화...에이블과 컨설팅 완료 [\(전문\)](#)

인엑스, 에이블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완료 [\(전문\)](#)

글로벌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서명 [\(전문\)](#)

메타, 비트코인 투자 나서나...주주총회서 '편입 제안' 화제 [\(전문\)](#)

국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암호화폐 시장 기대감...스테이블코인 및 ETF 공약 주목 [\(전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경제성장률 전망치 1.5%→0.8%로 하향 [\(전문\)](#)

가상자산

텔레그램, 2조원 규모 투자 유치 목표...블록록시타델 관심 [\(전문\)](#)

하이퍼리퀴드, 디파이 무기한 선물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문\)](#)

규제

미 노동부, 퇴직연금401(k) 암호화폐 투자 제한 지침 철회 [\(전문\)](#)

싱가포르, 해외 서비스 가상자산 기업에 30일까지 면허 의무화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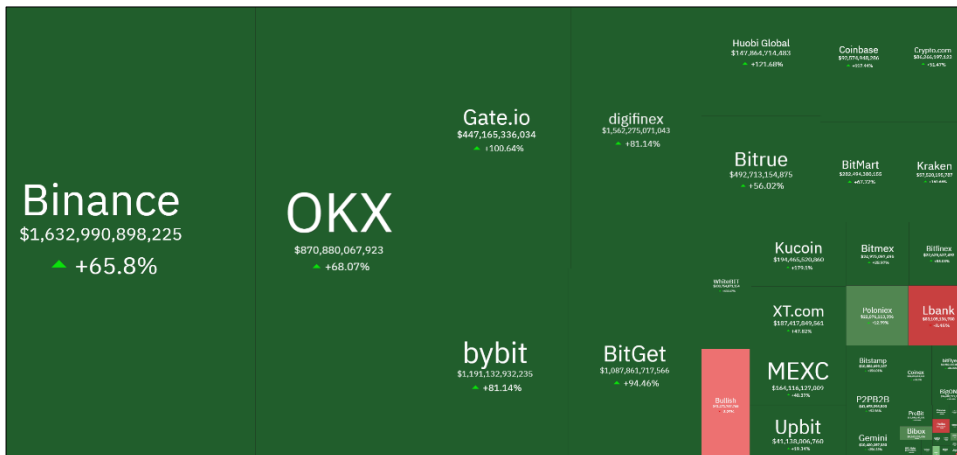
비트코인 ETF·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대선이 열 디지털 자산의 새 시대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06-06	-	미국 SEC '디파이 규제 논의'
2025-06-11	-	미국 CPI 발표
2025-06-17	-	G6 정상회의 (15일 ~ 17일)
2025-06-18	-	미국 FOMC 금리 발표
2025-06-30	FLOKI	플로키(FLOKI) 발할라(Valhalla) 메인넷 출시

2 주간 가상자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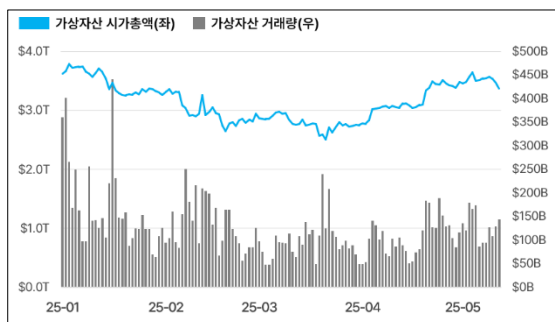
전월 대비 가상자산 거래소별 거래대금 (1 Month)



참고: 각 거래소별 최근 30일 거래대금 히트맵(Heat Map)

자료: Coin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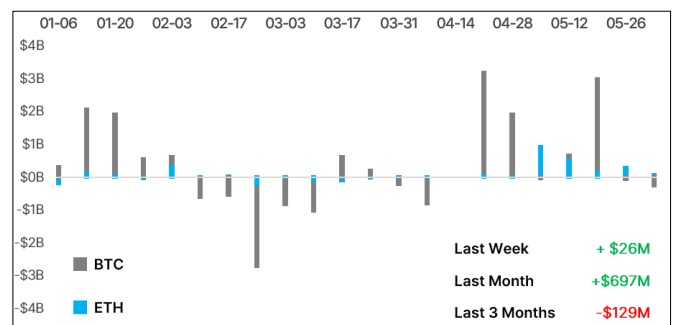
가상자산 가격 현황 (1 year)



참고: 최근 1년 가상자산 시가총액 및 거래량

자료: Coingecko

가상자산 ETF Flows (YTD)



참고: BTC, ETF Spot ETF Flows

자료: CoinMarketCap(CMC)

Comments

최근 2주간 가상자산 시장은 이더리움 펙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의 고점 부담 속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숨고르기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동안 BTC는 -1.2%, ETH는 3.0% 가량 소폭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전체 가상시장 시가총액은 여전히 2주 전 대비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는 4월 중순 이후 순유입 전환되었고, 밌코인 및 AI/데이터 관련 테마형 알트코인에도 투심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통 금융의 불확실성과 함께 리스크 온 환경이 재형성되고 있다. 6월 중 발표 예정인 CPI 지표와 FOMC 회의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주간 인사이트

체인간 생태계 분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다양한 메인넷들이 존재하지만, 블록체인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술적 차이로 인해 각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은 상이하다. 블록 보상 정책, 가스비 구조, 블록 생성 속도에 따른 TPS 등 네트워크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디앱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메인넷을 선택하게 된다.

체인명	EVM / Non-EVM	프로토콜 수	TVL	TVL Top3 Protocol		
				프로토콜 1 (카테고리)	프로토콜 2 (카테고리)	프로토콜 3 (카테고리)
Ethereum	EVM	1,240	\$64.9B	Lido (Liquid Staking)	AAVE (Lending)	EigenLayer (Restaking)
Solana	Non-EVM	243	\$9.3B	Jito (Liquid Staking)	Jupiter (DEX)	Kamino (perpetual DEX)
Tron	EVM	36	\$6.7B	JustLend (Lending)	SUN (DEX)	USDD (Stablecoin)
Bitcoin	Non-EVM	37	\$6.5B	Babylon (Restaking)	Lombard (LST)	Solv (Liquid Staking)
BSC	EVM	833	\$6.4B	Pancakeswap (DEX)	Venus (Lending)	Lista DAO (Lending)
Base	EVM	546	\$3.7B	Aerodrome (DEX)	Morpho (Lending)	AAVE (Lending)

[표1] 메인넷별 TVL 및 주요 프로토콜 현황

[표 1]에서 보듯이, EVM(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체인과 Non-EVM 체인 간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프로토콜 수와 TVL(Total Value Locked)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이더리움이 초기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솔리디티(Solidity)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EVM 체인 간에는 코드 복사 및 배포가 용이해 디파이 프로토콜의 확산과 유동성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는 곧 '머니레고(Money Lego)' 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단단히 구축된 이더리움 중심의 생태계는 단순한 기능 개선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이더리움의 등장 이후, Uniswap과 Aave 같은 DeFi 프로토콜이 자리 잡았지만 당시 이더리움은 PoW(Proof of Work) 기반으로 운영되어 트랜잭션당 가스비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보다 빠른 초당처리속도(TPS)와 낮은 가스비를 기치로 내세운,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Solana), 아발란체(Avalanche)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인넷들이 이더리움이 그동안 쌓아올린 탑을 무너트릴 정도로, 이더리움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Non-EVM 혹은 독자 규격 기반 메인넷은 디앱 온보딩(사용자 및 개발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디앱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기존 디앱과 자산, 사용자를 타 체인에서 유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이 핵심인데, 비EVM 체인은 언어와 기술 스펙이 상이해 호환성 확보가 어렵다. 이로 인해 각 체인은 독자적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단일 체인의 승자 독식' 구조는 무너지고 '다중체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단일 메인넷의 승자독식'이 아닌 '다중체인 시대'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디앱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더 이상 단일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으며, 브릿지, 메시징 프로토콜, 인터체인 기술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태계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TPS나 수수료의 문제가 아닌, 어떤 체인이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된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